

“유공자 예우 두텁게”...영암형 보훈 실천 ‘주목’

일상 속 실천하는 보훈 가치
예우·계승·소통 3대 전략 추진
AR 역사교육·현충공원 조성 등

영암군이 '일상 속 누구나 실천하는 보훈'을 목표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념·추모 중심의 보훈에서 나아가, 일상 속 보훈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역 역사 계승 ▲미래세대와의 소통이 핵심이다.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과 위문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과 기념 행사를 통해 정서적 지지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일

5만원 인상했으며,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계비·수당 지원과 사적지 정비,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도 강화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월 명예수당 지급 ▲명절 위문금 연 2회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연 4회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호국순례 및 각종 기념행사 추진 등이 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현재 5·18민주유공자 41명에게는 매월 생계비와 명예수당으로 10만~17만원이 지급되며, 도포면 상리리에 위치한 5·18사적지 표지석도 정비했다.

영암군은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하는 보훈'을 목표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역사 콘텐츠를 도입해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4곳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김준연선생의 업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영상으

로 제작해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보훈문화 확산 전문강사 양성 등 세대 공감형 보훈정책을 추진 중이다.

3·1절, 5·18, 현충일, 한국전쟁 기념일 등 매년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보훈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로 자리잡았으며, 영보항일농민운동 기념탑 건립 모금에는 군민 성금 1억300만원이 모여 지역사회의 보훈정신 확산을 보여줬다.

영암군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교통지구에 '영암현충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단순한 추모공간을 넘어 지역의 독립·호국·민주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역사를 기억하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지역에 미래가 있다"며 "군민이 일상에서 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암군이 지난날 개최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 저씨가 5·18민주유공자들과 함께 추모의 뜻을 나누고 있다. <영암군 제공>



강진군 작전마을 농가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군, 마늘·양파농가 '경쟁력 강화' 나선다

3억 예산 투입...장비 지원 사업

강진군이 총 3억원의 보조사업 예산을 투입해 지역 대표 원예특작 작목인 마늘과 양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안정화에 나섰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마늘·양파 재배 농가에 군 자체사업을 추진, 농가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품질 작물 생산 기반을 탄탄히 다진다.

주요 사업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지원 사업 ▲우량 마늘종구 구입 지원 사업 ▲양파 종자 구입 지원 사업 ▲마늘양파 기계장비 지원 사업 등이다.

우량 마늘종구 지원 사업의 경우 1천㎡(300평) 이상 마늘재배 농가에 총 37ha 규모로 고품질 마늘종구와 주아를 지원해 마늘재배 농가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반

영해 마늘·양파 기계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물 재배 특성상 파종부터 수확까지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해 마늘·양파 파종기와 수확기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계화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동시간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면적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팀 강진군 농정과장은 "이번 보조사업들은 강진군의 마늘·양파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쟁력 있는 작물 생산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늘·양파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를 경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 미래발전 정책사업 국정과제 반영 '총력'

국립의대 설립 등 19건 발굴

목포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을 담은 '목포 미래발전 정책건의사업' 19건을 발굴해 전남도와 주요 정당에 적극 건의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기획관리 국장을 단장으로 '공약추진 전남 TF'를 구성해 정책 발굴, 정부 동향 파악, 대외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건의사업은 ▲전남도 국립의과대 설립 ▲김산업 미래 전략 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미래형 선박 연구거점 조성 ▲신규

국과산업단지 조성 ▲고하도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 ▲목포 해양레저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및 조성 ▲대불산단 진입도로 구축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8개 분야 19건이다.

이들 사업은 목포시의 미래산업기반 구축, 해양·항공 기능 강화, 그리고 국민 통합의 상징 공간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후 목포가 서남권 광역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오는 4일 출범 예정인 새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하는 만큼, 목포시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이 최대한 정부 국정과

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신속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가 발굴해 전남도 및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진 부시장(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발굴한 정책건의 사업들은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 사업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천지전통시장 '새단장' 호응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함평군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시장 상인과 방문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냉동·냉장고, 상품전열대 등 판매 시설 구입 및 제작 등 점포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사진>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며 상인들은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고, 방문객 또한 "시장 분위기가 훨씬 밝고 깨끗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군에 감사하다"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전



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지난해 증도 설레미체험장에서 열린 제14회 섬 뱀뎡이축제에서 진행된 치어 방류 행사. <신안군 제공>

신안 증도 '섬 뱀뎡이 축제' 개최

7-8일 우전마을 설레미체험장 일원

돌게 낚시·카누·오리배 체험 등 다채

신안군은 2일 "오는 7-8일 이틀간 증도 우전마을 설레미체험장 일원에서 '제15회 섬 뱀뎡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뉴월 뱀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6월은 뱀뎡이의 계절로 지방이 풍부하고 살이 부드러워 회, 무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축제는 뱀뎡이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회와 지역 출신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준비됐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돌게 낚시, 카누, 오리배 체험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오감 만족

축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가 개최되는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 지역(2007년 12월)이다.

국내 최초의 갯벌도립공원(2012년 8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사르습지 등록 지역 등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청정 생태관광지다.

축제 기간 동안 소금박물관, 짬뽕어다리, 한반도 해송 숲 등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볼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올해 뱀뎡이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속형 축제로, 제철 수산물의 맛과 신안군만의 생태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해남, 여름 휴가철 '관광객 인센티브'

1박 이상 체류...최대 13만원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은 2일 "이달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해남쓰리Go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남쓰리Go 먹Go! 자Go! 즐기Go!'는 해남군을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즌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박2일 이상 해남에 머무르는 최소 2인 이상의 관의 관광객이며, 체류기간 동안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즌별 소비금액 상위 10팀에게는 해남군 농수산물 직영 소평몰인 '해남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상당 포인트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최대 1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일 최소 3일 전까지 해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해남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남=백필용 기자



영광군, 여름철 재해 대비 '총력'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 당부

영광군이 여름 장마철 피해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영광읍 덕호리 일원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 장마철 대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사진> 특히 하천 내 통수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속잡물과 가도 등을 사전에 철거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사면에는 방수포를 설치할 계획

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불평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세일 군수는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해 장마철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극한호우를 대비해 선제적 안전대책과 공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